[업계소식]

◆ KCP 서병륜 대표 환경부장관 표창장 수상

재사용 시스템으로 연간 150만톤 폐기물 방지 효과

한국파렛트풀(주), 한국컨테이너풀(주) 서병륜 대표이사가 환경문제 개선에 남다른 노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서병륜 대표에 대한 환경부장관 표창장 수여식은 지난 1월 10일 한국컨테이너풀(주) 사무실에서 가졌다.

유통단계의 포장에 사용되는 1회성 포장재 소비량은 연간 560만톤으로 추정되며, 이 양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56%에 해당될 정도로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병륜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 및 물류기기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풀시스템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들 회사에서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유화, 비료 등 1, 2차 산업 전반에 걸친 제품에 파렛트풀시스템과 컨테이너풀시스템을 도입하여 동종, 이종업계간 공동사용이 가능토록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및 아시아 포장물류기기의 표준규격 체계를 확립하여 포장물류기기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파렛트풀(주)와 한국컨테이너풀(주)에서는 폐기물 발생억제와 감량을 위해 반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재질로 포장물류기기를 생산 임대해준 후 사용

이 완료되면 회수를 실시하여 재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1회성 포장재 사용량 중 연간 150만톤 정도의 포장 폐기물 방지 효과와 포장 물류기기 공동사용을 통해 포장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두산인프라코어 최승철 사장,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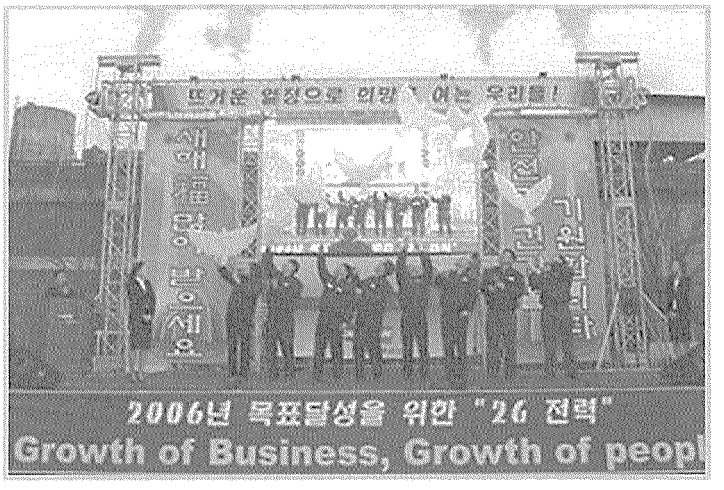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는 2월 21일 건설기계업체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제6대 회장에 現 두산인프라코어(주) 최승철(崔昇喆) 사장을 선임했다.

최승철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건설기계공업협회 회원사간의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형 제품개발과 기술력 축적을 통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함께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유수의 건설기계 단체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기계산업의 세계적 위상을 드높이며 국내업체들의 수출신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최승철 신임회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77년 두산기계에 입사한 이래 '99년 두산메카텍㈜ 사장을 거쳐 '05년부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기계산업 분야에서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장에 선임되었다.

◆ 두산인프라코어 안전과 소망기원 시무식 개최



두산인프라코어가 전 임직원의 안전과 소망을 기원하면서 새해업무를 시작하는 이색적인 시무식을 가져 화제가 되고 있다.

1월 3일 오후 두산인프라코어 최승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0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공장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전 임직원들은 무사안전기원제를 통해 안전을 빌었으며, 올해의 소망이 이뤄지기를 기원하며 달집태우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노사화합과 전 임직원들의 소망이 이뤄지길 기원하며 회사측 및 노동조합 대표뿐만 아니라 최연소 및 최고령 사원, 개띠 대표사원 등 다양한 인원이 참석하여 술을 따르고 절을 올려 그 의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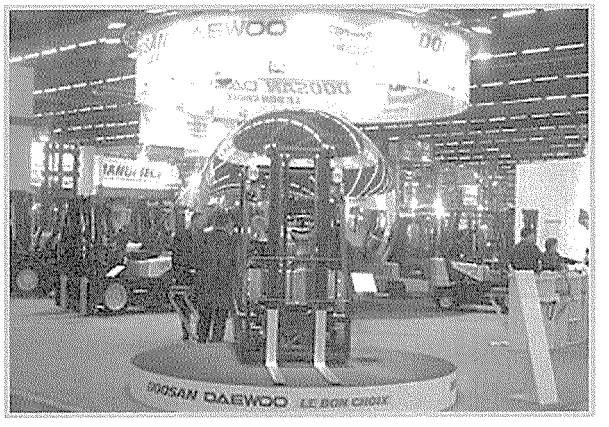
또한 무용단의 축하공연, 풍물놀이패와 함께하는 지신밟기, 강강수월래 등 고전민요에 맞춰 전 임직원이 모두 손을 잡고 어우러지는 대동 한마당을 연출함으로써 흥겨움을 더했다.

이번 시무식 행사는 새해를 맞아 서로 인사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전 임직원의 소망과 안전을 염원함으로써 노사화합을 통해 회사비전 달성을 위해 기획한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이러한 이색적인 시무식 행사를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최승철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략/성장과 운영혁신, 조직역량 강화 등 세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경영혁신활동에 진력해 나갈 계획" 이라며, 이를 위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 두산인프라코어 유럽 지게차시장 공략 강화



두산인프라코어가 올해 유럽지역에 대한 지게차 수출목표를 지난해보다 14% 성장한 1억 달러로 설정하고,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강화를 통해 유럽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두산인프라코어는 안전도가 높고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한 지게차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럽시장에 적합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제품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먼저 운전자 편의성과 안전성 기능을 표준사양으로 장착한 2006년형 엔진식 지게차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지난해에 출시한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도가 높은 차세대 전동식 지게차 6개 기종에 대한 마케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딜러지원 확대 및 고객가치 개선활동 등을 통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유럽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와 함께 최근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와 동유럽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게차 고객층 확대전략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는 3월 7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3대 물류장비 전시회인 'MANUTENTION 2006' 에 차세대 전동 지게차 및 2006년형 엔진식 지게차 8개 기종을 전시하여 유럽지역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전시회 기간 중 두산인프라코어는 유럽지역 딜러와 고객들에게 차세대 신기종 출시 계획과 판매전략 등을 설명함으로써 유럽시장 확대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두산(DOOSAN)' 브랜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브랜드 이미지도 향상시키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산업차량BG 김웅범 부사장은 "우수 딜러 발굴과 딜러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판매망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 및 시장차별화 전략의 전개로 올해 처음으로 유럽지역으로 1억 달러의 지게차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밝혔다.

◆ 한국물류협회, 2006년도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가 2월 17일 정기총회를 갖고, 200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밝혔다.

이날 협회는 2006년 주요업무로 한국물류협회의 국내외 위상제고 및 국제교류협력활동 강화와 동북아 물류강국 구현을 위한 정책 지원활동 확대를 비롯하여, 산업계의 물류합리화 활동 지원 및 효율화 추진,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 기능 및 한중일 물류협력활동 확대, 물류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훈련 활동 강화 등을 밝혔다.

◈ 물류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 업무제휴 협약

물류 IT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동추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가 지난 1월19일 협회 회장실에서 산자부 산하의 IT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박영기)과 업무제휴 협약식을 맺었다.

한국물류협회는 첨단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고부가 가치 물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물류와 IT기술이 접목된 물류 IT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물류협회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서는 물류산업과 첨단 정보시스템의 접목 관련 협동 연구 수행, 물류 IT교육 및 물류 전문인력 대상 정보기술 교육 공동 실시, 정보시스템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및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 물류산업 분야에서 공인될 수 있는 물류 IT자격제도 운영 방안 연구, 기타 물류 정보기술 발전을 위하여 상호 합의한 제반 사항 등을 제휴 사업으로 선정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유럽의 중요 포장 전시회 Ipack-Ima 2006

전시장 Fieramilano Center로 옮겨 개최

Ipack-Ima 전시회는 2006년 새로운 장소로 옮겨 전시를 개최한다. 또한 중요 이탈리아 플라스틱 전시회인 Plast 2006과 처음으로 공동개최한다.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Ipack-Ima 전시회는 무엇보다 이탈리아 최대의 플라스틱 전시회인 Plast 2006과 공동 개최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얻고 있다.

이번 공동 개최는 밀라노에 새로 오픈하는 약 140,000 스퀘아 미터의 전시장 규모를 갖춘 Fieramilano Exhibition Center가 세워지면서 이루어졌다. 전시회 주최측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3,500개 업체가 참여하며 130,000명이 참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로 20회를 맞는 Ipack-Ima 전시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전시회로 패키징, 식품가공, 물류산업 및 재료분야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며 이들 산업분야에 대한 2006년 유럽의 중요 전시회로 평가되고 있다.

Ipack-Ima 에서는 생산 공정에서 패키징, 유통과 저장에 이르는 생산 사이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회는 '패키징을 위한 기술', '식품의 원료 곡물을 위한 기술', '음료산업을 위한 기술', '재료 처리를 위한 기술' 및 '패키징 재료를 위한 기술' 등의 거대한 테마를 구역별로 정하여 전시부스가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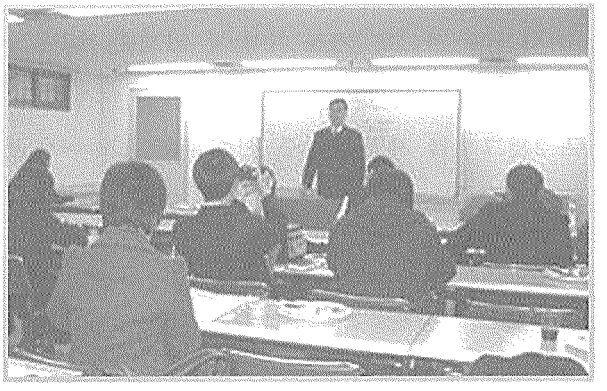
Ipack-Ima의 2006년에서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지역의 패키징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에서 기업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pack-Ima spa의 최고경영자인 Guido Corbella는 이번 전시회에 대해 "이탈리아 지역 이외에서의 참관자가 전체 참관자의 4분의 1에 달한다"며 "이탈리아 이외의 지역에서 참가하는 업체의 비율도 29%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월간포장에서는 이번 Ipack-Ima 2006 전시회를 올해의 중요 전시회로 보고 전시회를 참관하는 참관단을 모집하고 있다.

◆ 'KOREA PACK 2006' 기자 간담회 열려

1250부스의 대형 전시회로 규모 커져



오는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일산 KINTEX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KOREA PACK 2006'의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국내 유일의 포장 전문 전시회인 'KOREA PACK'은 올해 11번째를 맞아 그 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 해외 기업 및 해외 바이어의 참가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내 포장기업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KOREA PACK 2006'은 전시면적 22,000㎡에 500개사 1250부스 정도의 대형 전시회로써, 서울국제식품전(SEOUL FOOD 2006)과 국제제약·화장품·제조산업전(COPHEX 2006)을 동시 개최한다.

또한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의 해외 기업 150개사가 참여하여 선진 포장기술을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며, 해외 홍보를 통해 해외 바이어 참가율이 전년도 대비 25% 가량 늘어나서 국제적인 전시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시회 주최측인 경연전람의 김길수 팀장은 "KOREA PACK 2006 전시회는 전시회의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에 걸맞는 국내 유일의 포장 전문 전시회로써, SEOUL FOOD 2006과 COPHEX 2006의 성공적인 제휴 마케팅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구매력 있는 바이어의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산업자원부 선정 유망전시회와 경기도의 국도비 지원대상 전시회로 선정되어, 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동시에 받는다.

◆ 영림목재(주) 당진물류센타에서 식목행사를 가지다

영림목재(주) 관리사무직군 임?직원 일동 50여명이 지난 4월 1일에 식목행사를 가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당진 물류센타 1만 5천평 부지중 약 5천여평에 백합나무 2천그루를 식재하였으며,

업종 특성상 나무 소비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번 식목행사를 통하여 나무 생산시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식목 행사에 참여한 직원이 전하였다.

또한 식재된 백합나무 2천그루를 제공하여준 산림과학원 임목육종과에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